

“누가복음 8장 16절~25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25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99장(새찬송가 546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이유는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켜 등잔은 등불이 멀리 비취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기 마련입니다. 출입하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영적 어둠에 처한 인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환하게 알게 하여 주는 빛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과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여 줍니다. 천지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찌하여 심판 받게 되는 죄인인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줍니다.

복음의 빛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빛을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도록 등경 위에 설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좇아 사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등불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등경에 두어 비취게 하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윌리엄 케리는 인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로,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로, 하비에르는 일본으로, 칼 귀츨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조선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하려고 생애를 헌신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교회도 국내외로 널리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하는 사명 수행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등불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불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인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임무이며 특권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대상과 범위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오늘날은 적외선, 전파, 자기, 레이저, X선, 초음파 등을 이용하는 전자기기, 광학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물체의 모습과 소리를 포착하여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술이 범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천체(天體), 땅속, 물속, 몸속, 온갖 물체 속을 탐지 탐색할 수 있고 어둠에도 제한받지 않으며 항공기, 인공위성, 드론 등으로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말을 그 건물 밖에서 탐지합니다. GPS 수신 기능이 탑재된 네비게이션이나 휴대폰으로 개인위치 확인과 길 안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된 기록이 지워졌거나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과 심사(心事)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살펴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죄를 직고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가 없는 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경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죄가 다루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하여 한 것이면 공력 심판을 통하여 다 불타버립니다. 칭찬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

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3-15) 하였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였습니다. “명심하여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귀담아들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보편적 원리이며 또한 신령한 법칙입니다. 목표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대와 꿈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함으로 있는 것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내게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를 시인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있으면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상 근심밖에 없으면 건강을 상실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숙식문제뿐 아니라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총동원하여 거의 강제적으로라도 둘러싼 무리들에게서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작심하고 온 것 같습니다.

동정녀로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과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일부터 이어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비로운 사건들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고와 판단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우려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역시 구세주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인이었으니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출산하였고 그 후에

는 요셉과 꾸린 가정생활을 통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이름의 아들들과 적어도 두 명의 딸을 출산하고 양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장남이었으니 형제라는 관계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비로소 예수님을 육신적 혈연관계가 아닌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며 신약성경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로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거룩한 임무 수행을 혈족이라도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예수님과와의 관계가 지극히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호수 가운데로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피곤하여 한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광풍이 밀어 닥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침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어 풍파를 명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 기록 중에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풍파를 제압하여 호수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신 다음 이를 기이하고 놀랍게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단순히 당시의 제자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되게 한다면 이 질문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가 겹쳐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항상 신기하고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의 진리를 여러 세대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알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주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라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아니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두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담대하고 기대로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1,32)

②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③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의 신실함과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선하는 중에 광풍이 내리치고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 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 상황에 마음이 지배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풍파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불안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주님!"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두지 않고 현실 상황에 두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다면 그토록 당황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다면 오히려 풍파를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합니까?"라는 질문에 성도 여러분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도 슬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이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인격이 없는 대상인데 예수님은 마치 인격을 가진 대상을 대하듯이 꾸짖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큰 풍파의 배후에는 사탄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상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6)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이시고 또한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를 믿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며 "이분이 누구이기에"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를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다 하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살았으면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입니다.

광풍이 휘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즉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